강성률 교수의

철학 이야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유튜브 '강성률 철학티비', '강성률 문학티비' 운영중

철학자와 자녀(6)-아브라함과 이삭

(율법에는 인신 공희를 금지하고 있지만) 가나안 땅 안에서 인신(人身) 제사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으려는 광경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燔祭)로 드리라는 것은 이삭을 죽인 후, 그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르라는 뜻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아셨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명령을 들은 후 나타난 아브라함의 행동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에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라고 물으며, 하나님과 1:1 담판을 하였던 인물이다. 이런 아브라함이 한 마디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사흘 여정의 여행 준비를 하고 있다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전한 '복종'이었다.

누구보다 일찍 일어난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었다. 사흘 길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3일째 되는 날이 밝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종들이 자기와 아들의 뒤를 따라오지 못하게 한다. 대신 나귀 등 뒤에 실었던 쪼갠 번제 나무를 아들인 이삭의 등에 지웠다. 그리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같이 걸어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가슴 철렁하게 만드는' 이삭의 질문이 나온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대답한다. 아버지 입장에서 차마 "아들아, 네가 바로 그 어린양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시한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은 먼저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번제할 나무를 그 위에 벌려놓았다. 그리고 난 후, 자신의 아들을 묶어 제단 나무 위에 얹어놓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도망치지 않았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약 13, 4세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 또래의 아이가 목숨 걸고 도망을 갔다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삭을 잡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삭은 도망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은 채, 번제할 나무 위에 그냥 묶인 채로 아버지의 처신을 기다린다. 아버지가 칼을 들어 자신을 죽이려는 순간에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더라면, 과연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았을까?『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스토리는 '과연 나라면,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만든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예방이 최고의 소방, 신고가 안전을 지킨다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며 단 한순간의 방심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비상구 폐쇄·차단, 소방시설 차단과 같은 불법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이 제도는 누구나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목격했을 때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사회적 감시망을 확대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재난을 예방하는 실질적 장치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에서 소방시설은 곧 생명의 통로다.

그러나 비상구가 막히거나 소화전이 불법으로 차단된 상태라면 화재 시 대피와 초기 대응이 불가능해져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된다. 신고포상제는 이러한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예방이 최고의 소방'이라는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무엇보다 제도의 성패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다.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시민이 많아질수록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길은 빨라진다. 소방당국 또한 신고를 철저히 처리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국민의 신뢰에 부응해야 한다. 화재 없는 안전한 사회는 소방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높은 안전 제도다.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정재성

오늘의 운세 2025년 9월 29일 월요일 (음력 8월 8일)

48년생 식구라는 울타리 크고 화려해진다.60년생 변화의 빠른 물결 동참을 서두르자.72년생 혼자만의 세계 잘못임을 알아내자.84년생 조그만 불씨가 희망이 되어준다.96년생 강이 바다로 가는 과정을 거쳐보자.

49년생 미안함이 많았던 빚을 갚아내자.61년생 버거운 숙제 주변 힘을 빌려보자.73년생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아올 수 있다.85년생 아름다운 작품 꽃 그림을 그려보자.97년생 답답했던 부진의 숨통이 트여진다.

50년생 과거의 인연과 사랑을 속삭여보자.62년생 한강에 돌 던지기 보따리를 싸내자.74년생 쉽게 하는 허락 책임을 크게 한다.86년생 최고라는 칭찬 감사히 받아내자.98년생 착하고 예쁘게 하늘 복을 쌓아가자.

51년생 입소문도 나고 유명세도 더해보자.63년생 시끌벅적 요란한 잔치가 벌여진다.75년생 멋있고 근사한 자랑이 생겨난다.87년생 아쉬웠던 부분 채우고 넘쳐난다.99년생 무모하지 않은 적극성을 가져보자.

52년생 나이가 벼슬이다. 쉬워 보이지 마라.64년생 성공적인 반응 한숨이 돌려진다.76년생 오지 않는 약속 포기하고 돌아서자.88년생 보석 같은 제안 안아주고 감싸주자.00년생 괜히 하는 농담 이별인사 대신이다.

53년생 체면이 대수냐 신나게 놀아보자.65년생 주거니 받거니 훈훈함이 더해진다.77년생 목표는 근거리 거침없이 달려가자.89년생 거짓 유혹이 빈틈으로 들어온다.01년생 싹싹한 모습으로 낙점을 받아내자.

54년생 상처뿐인 영광, 마냥 편할 수 없다.66년생 뜻깊은 자리에서 이름이 알려진다.78년생 꺼내서는 안 될 말, 속으로 눌러 내자.90년생 생각은 짧게 행동으로 옮겨가자.02년생 여전히 진행형 멈춤이 없어야 한다.

55년생 일희일비 없는 꾸준함을 지켜내자.67년생 잔뜩 했던 기대 모양만 빠져 진다.79년생 사서 했던 고생 자랑으로 변해진다.92년생 강한 승부근성 반전을 불러낸다.83년생 싫다 하는 거절의 의미를 알아내자.

56년생 확연한 차이 경쟁에서 앞서 간다.68년생 생각은 복잡해도 처음을 지켜내자.80년생 지극정성 담겨진 선물을 받아보자.92년생 좋다 하는 유혹도 한 귀로 흘려내자.04년생 도움 달라 부탁에 어깨를 빌려주자.

57년생 멍석 깔린 자리 존재감을 뽐내 보자.69년생 이루고 싶은 꿈은 현실이 되어 간다.81년생 안과 밖 경사에 배부르고 따뜻하다.93년생 기회에서 망설임 땅을 쳐야 한다.05년생 다름을 인정하고 선을 그어내자.

58년생 세월을 거스르는 재미에 빠져보자.70년생 까칠했던 인사 금방 친구가 된다.82년생 든든한 조력자가 힘을 보태준다.94년생 흉내만 내던 솜씨 진짜가 되어 간다.06년생 아이가 아니다. 형님 노릇 해야 한다.

47년생 구경조차 못 해 본 호사를 누려보자.59년생 괜히 나선 자리 불청객이 돼야 한다.71년생 배우는 공부 모범생이 돼야 한다. 83년생 포기하지 않았던 상을 받아보자.95년생 자신했던 결과 초라하게 끝나진다.

기고

리튬이온배터리, 편리함 속의 불씨를 경계하자

최근 개인용 이동장치(PM) 보급이 늘어나면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전동스쿠터 배터리 화재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나주 노안면에서 트럭에 적재된 드론용 리튬이온 배터리 팩이 고온·밀폐된 보관환경 속에서 '열폭주' 현상을 일으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빠른 초기 진화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이처럼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특정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가정과 길거리 등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리튬이온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 가벼운 무게, 충·방전 효율성이 뛰어나 휴대용 전자기기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장점 뒤에는 과충전, 외부충격, 부적절한 보관으로 사용 시 화재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숨어 있다

리튬이온배터리는 일상 가까이에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결코 가볍지 않은 위험성도 함께 존재한다. 지난 5년간(2020~2024) 전국에서 발생한 배터리 관련 화재는 총 678건에 달하며 이 중 전동 킥보드 485건(77.3%)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매년 사건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KC 인증 정품 충전기 사용 - 인증되지 않은 저가 충전기 사용은 위험을 키운다

2. 충전 관리 - 충전 완료되면 즉시 플러그 뽑아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3. 충전 장소 - 통풍이 잘되고 주변에 가연성 물품이 없는 장소에서 충전한다. ※현관문, 비상구 근처 충전금지(화재 시 대피로 확보를 위함)

4. 외부 충격 주의- 배터리를 떨어뜨리거나 임의 개조·수리하지 않는다

5. 안전한 보관 –직사광선과 습기를 피하고 서늘한 곳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예방이 가능하다. 작은 부주의가 가정과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큰 불씨로 번지지 않도록 시민들의 안전의식과 올바른 사용 습관이 중요하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생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을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나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박시하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 장 이송암 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 전광춘 편집국장 박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525-9775	<팩 스>	(062)528-4566
회 장 실	(내선)210	편 집 국	교 2001
임 원 실	(내선)207	정 경 부	교 2003
총 무 국	교 2002	사 회 부	교 2004
광 고 국	교 2006	사 업 국	교 2007

인쇄 :(주)대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13,000원 · 1부700원